

논술실록 論述實錄

The Priceless value of the Pass : 가늠할 수 없는 합격의 가치

부교재 : 경희대학교 편 (인문논술)
공개용 자료

신주용(오르비 논술팀) 지음
오르비 아이디 넵툰.

경희대학교

Part 1. 이론편

절대구조 이론의 경희대학교 적용

- <1> Opening Stage
- <2> 제시문 분류
- <3> 양자 비교
- <3> 대응

Part 2. 최근 경희대학교 기출 + 모의문항 (12회) [미정]

- <1> 2015학년도 사회계 모의
- <2> 2015학년도 인문·체능계 모의
- <3> 2014학년도 사회계 오전
- <4> 2014학년도 사회계 오후
- <5> 2014학년도 인문·예체능계
- <6> 2014학년도 사회계 모의
- <7> 2014학년도 인문·예체능계 모의
- <8> 2013학년도 사회계1
- <9> 2013학년도 사회계2
- <10> 2013학년도 인문·예체능계
- <11> 2013학년도 사회계 모의
- <12> 2013학년도 인문·예체능계 모의

1. 이론편

절대구조 이론의 경희대학교 적용

Opening Stage

제시문 분류

양자 비교

대응

<1> Opening Stage. 경희대학교 : 사회계열 + 인문계열

근 3년간의 경희대학교의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의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우선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회계열은 변함없이 항상 3문제가 출제되어왔다. 보통 1번 문항은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러 제시문을 가져다 놓고 이를 입장에 따라 분류하는 ‘제시문 분류’ 문항이 출제되었다. 2번 문항의 경우에는 대응을 기반으로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앞서 예외로 지적되었던 2013학년도 오전 사회계열 문항의 1번 문항 역시도 ‘대응’을 통해 해결하는 문항이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은 수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는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되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2~3문제가 출제되어 왔으며, 1번 문항은 보통 양자 비교의 형태로 출제되었다. 나머지 2~3번 문항의 경우에도 모두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가 경희대학교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두 해야 할 도구는 단 세 가지이다. 사회계열의 경우 제시문 분류와 대응, 인문계열의 경우 양자 비교와 대응이다. 즉, 이 책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배운 논술실록 시리즈의 절대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문 분류, 양자 비교, 대응’으로 정리해 각각 경희대학교에 맞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실제 기출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발문’들을 모두 가져와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제시문 분류 / 양자 비교 / 대응’ 이외에는 없음을 확인시켜주고자 한다. 아래 정리된 발문 통계를 살펴보자.

From 넵튠.

아쉽지만 여기서는 ‘수리논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수리논술’은 사회계열에만 국한해 출제되고 있으며 항상 3번 문항에 출제된다.
뒤이어 제시되는 발문 정리에서 사회계열 문항이 2번까지만 제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1번 문항: 사회계

- > 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015 모의 사회계): 제시문 분류
- > 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2014 오전 사회계): 제시문 분류
- > 제시문 [가]~[라]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여 비교, 요약하시오.
(2014 오후 사회계): 제시문 분류
- > 제시문 [가]~[라]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2014 모의 사회계): 제시문 분류
- > 제시문 [가]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2013 오전 사회계):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가]~[라]를 주요 논지에 따라 분류하고, 그 차이를 비교 논술하시오.
(2013 오후 사회계): 제시문 분류
- > 제시문 [나]와 [다]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2013 모의 사회계): 대응 (비판/평가)

먼저 사회계 1번 문항의 발문을 가져온 것이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대응’유형으로 출제된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시문 분류’의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대응으로 출제된 경우는 2013 모의 사회계에 출제되고 난 뒤 그 해 오전 문항에 출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2] 1번 문항: 인문·예체능계

-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시오.
(2015 모의 인문·체능계): 양자 비교
-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시오.
(2014 인문·예체능계): 양자 비교
- > 제시문 [가]~[라]를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2014 모의 인문·예체능계): 제시문 분류
- > 제시문 [가]와 [나]의 주요 논지를 비교 논술하시오.
(2013 인문·예체능계): 양자 비교
-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각각의 논지를 비교 논술하시오.
(2013 모의 인문·예체능계): 양자 비교

다음으로 인문·예체능계의 1번 문항의 발문을 가져온 것이다. 2014 모의에서 ‘제시문 분류’로 출제된 경우가 특이한 경우였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서 양자 비교형으로 문항이 출제되었다.

[3] 2~3번 문항 : 사회계 + 인문·예체능계

- >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다]~[마]의 논지를 비판하십시오.
(2015 모의 사회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바]를 기반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논술하십시오.
(2015 모의 인문·체능계 2번): 대응 (대응적 비교)
- >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마]의 논지를 비판하십시오.
(2015 오전 사회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 한국사회에서 지역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지역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나타난다. 제시문 [마], [바]의 논지를 근거로 혐오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의 해결 방안 및 한계점을 논하십시오.
(2013 오후 사회계 2번): 대응 (단순 대응)
- > 제시문 [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주인공, [다]의 화자, [라]의 '현자'의 태도를 비판하십시오.
(2014 인문·예체능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 [라], [마]의 주장을 평가하십시오.
(2014 모의 사회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가]에서 제기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나]~[마]를 이용하여 논술하십시오.
(2014 모의 인문·예체능계 2번): 대응 (단순 대응)
- > 제시문 [다], [라], [마]의 시각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각각 비판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동선을 어떻게 추구하여야 할지를 논술하십시오.
(2013 오전 사회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단순 대응)
- > 제시문 [라], [마], [바]가 환경 보전 활동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2013 오후 사회계 2번): 대응 (단순 대응)
- > 제시문 [다]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라]의 양자(A, B)의 관점의 차이를 논술하십시오.
(2013 인문·예체능계 2번): 대응 (대응적 비교)
- > 제시문 [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와 [다]의 주요 논지를 비판하십시오.
(2013 인문·예체능계 3번):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가]의 주장이 제시문 [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논술하십시오.
(2013 모의 사회계 2번): 대응 (단순 대응)
- > 제시문 [다]의 내용에 근거해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십시오.
(2013 인문·예체능계 2번): 대응 (단순 대응)
- > 제시문 [마]의 관점에 입각해서 제시문 [가]와 [나]의 한계를 비판하십시오.
(2013 인문·예체능계 3번): 대응 (비판/평가)

2, 3번 문항들은 모두 '대응'에 기반해 문항이 구성된다. 대응 뒤에 붙어있는 비판/평가, 단순 대응, 대응적 비교에 대해서는 논술실록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느꼈을 내용을 유형화 해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될 것이다.

<2> 제시문 분류

: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1번 문항 해결의 Master Key.

개별 제시문이 아니라 이를 묶는 **입장 및 주장의 논의에 주목하라.**
공통 주제어는 발문 간, 제시문 간 걸쳐 읽기를 통해서 도출한다.
그 후 **채점 기준표**를 상기하여 답안을 작성하라.

개별 제시문이 아니라 이를 묶는 입장 및 주장의 논의에 주목하라

이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1번 문항에 지금껏 출제되어온 ‘제시문 분류’ 유형에 대해 정리해보기로 한다. 발문은 분류에 더하여 요약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요약 유형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시문의 분류를 통해 양자비교 혹은 삼자비교를 하라는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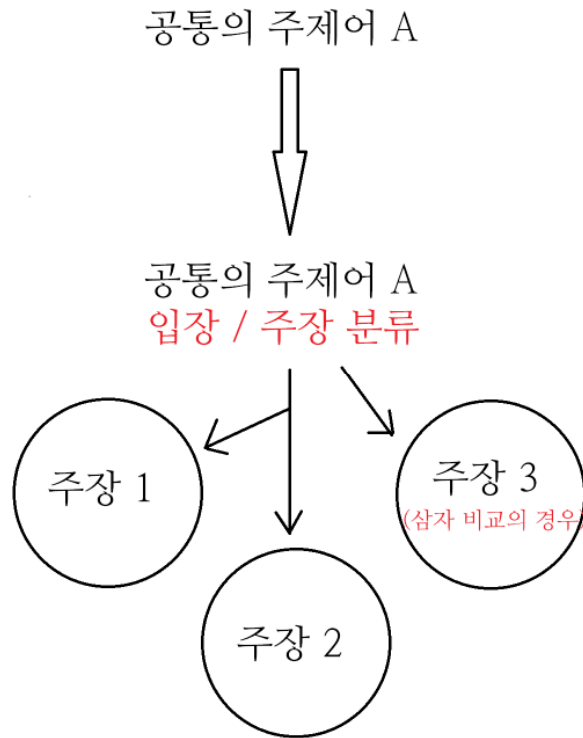
개별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들을 놓고 이들을 요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문이 항상 ‘분류’를 하고 난 뒤에 ‘요약’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 근거이다.

제시문들의 내용을 입장별로 분류한 이후에 각 제시문의 이름을 구태여 따로 언급해줄 필요도 없다. 실제로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2013 논술고사 오후 사회계 예시답안에는 제시문의 입장을 분류하고 난 뒤 각 주장에 포함된 제시문들의 이름을 구태여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경희대학교에서 밝힌 역대 채점지침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제시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점의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 각 제시문의 내용에 매달리지 말고 제시문들을 포괄하는 주장에 집중하자. 개별적 제시문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지나지 않는다.

경희대학교 제시문 분류 해결의 사고 Process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경희대학교 제시문 분류 문항을 해결하는 사고의 Process를 정리해보고자. 우선 제시문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분류의 기준, 즉 ‘**공통 주제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난 뒤 ‘공통 주제어’에 대한 입장, 주장에 따라 제시문들을 2~3개의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 근거로 작성해주면 된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통 주제어’를 반드시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공통 주제어’를 둘러싼 각 제시문들의 입장 / 주장을 문항의 요구에 따라 2~3개로 분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장을 세 가지로 분류하라는 말이 아니고서야 모두 두 가지 주장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5개의 제시문인 경우에는 2:3으로, 4개의 제시문인 경우에는 2:2로 분류해주면 된다.

제시한 그림의 화살표를 잘 보면 삼자 비교의 경우에는 주장 3이 주장 1, 2와 애초에 다른 화살표로 그려지고, 주장 1, 2는 같은 화살표에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논술실록 시리즈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미 알 수 있는 연세대학교의 ‘삼자 비교 문제’의 전형적인 구성이다.** 이번 경희대학교 2015 모의 사회계에 출제된 문항의 경우 5개의 제시문을 주장에 따라 2:2:1로 분류하도록 출제되었는데, 이 구성이 연세대학교의 ‘삼자 비교 문제’와 본질적으로 같았다는 점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경희대학교 제시문 분류의 어려움 2가지. 주제어의 부재와 자수 제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보자.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1번 문항의 핵심은 당연히 ‘제시문을 주장에 따라 제대로 분류하는 것’이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분류’이다. 즉,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정확한 ‘분류’의 피해법은 제시문의 정석적인 독해를 통해 이를 묶는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제시문 분류’를 기반으로 문항을 출제하는 학교로는 성균관대학교가 있다. 그러나 경희대학교의 논술 문항은 성균관대학교의 논술 문항에 비해서 제시문 분류에 접근하기가 대체적으로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논술실록 시리즈에서 다루었던 다른 학교들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와 달리, 경희대학교에서는 제시문 간 비교를 요구한 모든 기출 문항들에서 **1번 문항에 주제가 등장하지 않았다**. 즉, 학생은 1번 문항만을 읽고는 어떤 사전 지식이나 논의의 틀을 찾기 어렵다. 비슷하게 제시문 분류를 출제하는 성균관대학교는 보통 발문에 공통 주제를 밝히고 분류하라고 요구하는데,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대비되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2. 제시문을 4~5개 주고 2~3개의 입장으로 분류하는 문항이라는 점에 비하면 **각 문항에 배분된 자수가 401~500자 내지는 501~600자로 많지 않다**. 따라서 오히려 각 제시문들의 개별적 논의에 치우치면 이에 휩쓸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성균관대학교는 자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물론 보통 합격자들은 600자 내외에서 합격하기는 하지만 글자수를 규정한 것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

Cf) 글자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 드립니다.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가이드북에서는 글자수 규정에 따른 감점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1) 원고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 (.)

(2) 원고분량에 대한 평가는 감점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다.

▪ [논제 1]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300자 미만 감점

400자 미만 감점

400자 이상 ~ 450자 미만 감점

650자 이상 ~ 700자 미만 감점

700자 이상 감점

▪ [논제 2] (1,101자 이상 ~ 1,200자 이하)

800자 미만 감점

1,000자 미만 감점

1,000자 이상 ~ 1,050자 미만 감점

1,250자 이상 ~ 1,300자 미만 감점

1,300자 이상 감점

> 제시 분량에서 50자 내외로 넘어가거나 모자라는 경우까지는 분량 문제로 감점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15 경희대학교 논술가이드북

혹시나, 제시문 분류에 어떤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까지의 출제 양상으로 보아 확실한 것은 4개의 제시문이 등장할 경우 2:2로, 5개의 제시문이 등장할 경우 2:3으로 분류된다는 점뿐이다. 이는 아마도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반화하기는 다소 이르다.

특히나, 이번 2015 모의 문항에서는 2:2:1로 분류하는 '삼자 비교'형 제시문 분류 문항이 출제된 바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가]와 [나] 제시문이 반드시 다른 입장 및 주장에 있다는 것과 같은 ‘나름의 합리적 추론에 의한’ 규칙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이미 2014 사회계 오전에서는 [가]~[마]를 분류하면서 [가], [나], [마]와 [다], [라]로 묶어 문항을 출제한 바 있었고 오후 사회계 문항 1번에서도 [가]~[라]를 분류하면서 [가], [나]와 [다], [리]로 분류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몇 번이고 반박된 적이 있다. 말 그대로 정확한 제시문 독해를 바탕으로 하는 분류만이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제부터는 앞서 제시한 두 문제점, 그러니까 ‘주제어의 부재’와 ‘빡빡한 자수 제한’을 엮어 이에 대한 파해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경희대학교 논술에 접근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빡빡한 자수 제한은 공통 주제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경희대학교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주제어 도출’이다. 이는 경희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분량이 워낙 타이트하고, 때문에 완전히 컴팩트한 내용만 서술하는 식으로 답안이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컴팩트한 답안은 다시 말해서 어떤 ‘부차적인 주저리주저리’를 원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있는 답만을 모두 쓰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직접 발표한 채점 기준표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014 오후 사회계 문항에 대해서 경희대학교에서 제시한 채점기준표의 일부를 직접 가져와 분석해보기로 하자.

<p>1) 논제 1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p> <p>① 제시문 [가]~[라]를 논지에 따라 [가]와[나] 및 [다]와 [라]로 분류하고, [가], [나]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 [라]의 경우 극복 대상의 부정적인 요소로 규정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공통점을 요약·제시하면 가점</p> <p>-> 한마디로 ‘사회적 갈등’이라는 공통 주제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했는가 제일 첫 번째 채점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즉, 공통 주제어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흔들리면 처음부터 채점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답안이 되어 버린다.</p> <p>-> 또한 분류 그 자체의 정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가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채점을 하라는 것 자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래 채점 시 유의사항에 보면 ‘분류’가 적절했으나 정확하지 않거나 이유가 적절히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감점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맞게 분류했어도 이러면 감점이 라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틀린 경우는 채점 시 유의사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즉 안타깝지만 불합격이다.</p> <p>② 제시문 [가]에 드러나는 갈등의 상호작용적 기능과 집단인식 강화와 같은 효과를 제대로 제시하면 가점</p> <p>③ 제시문 [나]에 드러나는 갈등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그에서 비롯된 창조적 효과를 제대로 제시하면 가점</p> <p>④ 제시문 [다]이 주장하는 갈등의 경제 손실적 측면과 예방의 필요성을 지적하면 가점</p> <p>⑤ 제시문 [라]이 주장하는 계급간의 적대 관계와 미래의 갈등 없는 사회 도래를 지적하면 가점</p> <p>-> 채점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컴팩트하다. 논술실록 시리즈 4권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사회적 갈등’이라는 공통 주제어에 대한 논리적 선행항과 후행항을 제대로 파악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앞서 말한 ‘부차적 주저리주저리’는 채점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면 감점이 된다고 보기는</p>

어렵겠지만, 딱딱한 자수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써야 할 말을 쓰지 않고 쓸데 없는 말을 쓰는 것은 결국 써야 할 말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즉 역시 안타깝지만 불합격이다.

※ 채점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가]와 [나]가 사회적 갈등을 긍정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에 반해 [다]와 [라]가 부정적으로 파악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대비적으로 서술할 경우 높게 평가함
- (2) 분류 이유는 적절했으나, 분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분류는 제대로 했는데 분류의 이유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으면 감점함
- (3) 이 논지의 분류에 따라 그 차이점을 정확히 제시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본 문제의 의도이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지 않는 답안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 말아야 함

->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결국 '명확한 답안'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명확한 답안이라는 것은 '공통 주제어'에 대한 명료한 파악과 함께 각 제시문들이 이 '공통 주제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에서 갈리는 것이다. 즉, 공통 주제어의 도출은 경희대학교 논술 합격의 A to Z에 해당한다.

출처 : 경희대학교 2014 사회계 오후 출제기준 및 채점 기준 [1번 문항]

이쯤 되면 문항의 '공통 주제어'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공통 주제어 찾기의 핵심, 제시문 및 다른 문항 걸쳐 읽기

그런데, 이 주제어를 찾는다는 것이 개별적 제시문의 독해만으로는 그다지 녹록치 않다.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다]

자연의 섭리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원칙은 이 지상의 모든 생물의 종(種)이 내면적으로 격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관찰만 해 봐도, 생물들의 생식과 증식은 자기 내부로 제한되는 것이 거의 철칙이다. 어느 동물이나 같은 동료하고만 짝을 짓는다.

이러한 철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했을 때에만 변경된다. 예를 들면, 다른 동물에게 붙잡혀 강요된 경우라든가, 또는 같은 종끼리의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자연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것에 저항한다. 가장 명백한 자연의 항의는 잡종에 대해 그 후의 생식능력을 거부하거나, 혹은 자손의 임신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병(病)이나 적의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빼앗고 만다.

전혀 다른 두 생물을 교배하면 그 자손은 양쪽 부모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태어난다. 즉 그 자손은 양친 중 열등한 쪽보다는 우수할지 모르지만, 우등한 쪽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그 결과 이보다 우등한 생물과의 투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합은 생명 자체를 보다 우수하게 양육하려는 자연의 의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의지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고등한 자와 보다 열등한 자의 결합이 아니라 전자의 철저한 승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다 강한 자는 지배해야 하며, 보다 약한 자와 결합함으로써 자기의 뛰어난 점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실제 제시문을 하나 가져와보았다. 2015학년도 모의 사회계에 출제된 제시문 [다]였다. 이 제시문 하나만을 가지고서 문항 전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겠는가?

학생들은 더러 이 글을 보고 공통 주제어를 ‘생물’이나 ‘생물학’과 같이 어떤 자연과학적 논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평소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학생이거나 우연히 이 글의 출처를 알고 있는 소수의 학생의 경우에는 이 글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글만으로는 전체 주제어를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논의를 진행해보자.

그렇다면 이 제시문과 함께 출제된 다른 제시문들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과연 ‘생물’ 혹은 ‘생물학’이 문항 공통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보자. 나머지 [가], [나], [라], [마]의 제시문이다.

[가]

프랑스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 착용 금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인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한 무슬림 남성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됐다. 최근 프랑스 법무부가 부인에게 베일을 강요하는 남편들에게도 시민권 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나온 첫 거부 사례로 부르카, 니캅(눈을 제외한 얼굴과 전신을 가린 검은 베일)착용 금지 파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에릭 베송 프랑스 이민 담당 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 국적 여성과 결혼한 모로코 출신 남성이 시민권 심사에서 부인에게 니캅을 쓰지 않을 경우 외부 출입의 자유를 제한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남녀평등과 세속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프랑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양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가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모로코 남성은 여성과 악수를 거부하거나, 집 안에서 아들 딸들을 한 공간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등 평소 여성 차별적 태도를 취해 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생활 방식은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으나, 프랑스가 추구하는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모로코 출신 여성의 시민권 신청을 베일 착용과 급진적 이슬람 성향을 이유로 들어 거부한 적이 있다. 이번 시민권 발급 거부 사건은 부르카 착용 금지 논란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랑스 의회 부르카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무슬림 여성들이 공공 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랑스 집권 여당 대중운동연합(UMP)은 조만간 프랑스 의회에 금지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나]

각 외국인마을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거리감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다. <표1>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7년에 발표한 보고서 중 외국인마을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한국 사람들에게 5점 척도(1: 매우 작음, 5: 매우 큼)로 설문하여 응답받은 결과의 일부이다. 이로 보건대 외국인마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 포용이 더 필요하다.

다행히도 국적과 인종, 그리고 종교 등에 의해 조성된 다양한 외국인마을이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마을 속 외국인들을 더욱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원공동 다문화특구에 들어서면 이국적인 풍경에 놀란다. 거리에는 중국어 간판, 태국어 간판, 몽골어 간판, 베트남 간판 등이 즐비해 국적을 알 수 없는 이방의 도시에 들어선 느낌이다. 다문화특구 거리에는 히잡을 쓴 이슬람계 사람들과 검은 피부의 아프리카 사람들부터 중국, 몽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등 국제적인 도심을 느낄 수 있다. 다문화특구에 등록된 외국인 국적 100여 개국의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상점에는 기름에 튀긴 도넛과 만두호떡, 연변순대 등 중국음식이 넘쳐나고, 태국 꼬양꼬, 네팔식 카레 등 다양한 음식이 펼쳐져 있다. 과일가게에는 망고스틴, 두리안, 바나나 등 열대과일이 넘쳐나고 있어 마치 동남아에 온 느낌이다. 식품점에는 중국산 향신료와 중국전통술 등 각종 식료품이 진열장에 즐비하고, 휴대폰 상점에는 중국점원, 베트남점원, 태국점원 등이 각국의 고객들에게 자국어로 설명하는 풍경도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정통음식 식당은 물론 태국, 베트남, 몽골, 태국 등 전문 음식점들은 약 150여 곳에 이른다. 주말이 되면 이곳에 음식을 맛보러 오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발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 외국 음식점들은 본국의 맛을 내기 위해서 본국에서 전문 요리사를 초청해 한국에 이주한 동포들에게 고향의 맛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 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이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교도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었기에 돋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 같은 신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약탈을 금지했습니다.

[마]

The first use in American literature of the concept of immigrants "melting" into the receiving culture are found in the writings of J. Hector St. John de Crevecoeur. In his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1782) Crevecoeur writes, in response to his own question, "What then is the American, this new man?" that the American is one who "leaving behind him all his ancient prejudices and manners, receives new ones from the new mode of life he has embraced, the government he obeys, and the new rank he holds. He becomes an American by being received in the broad lap of our great Alma Mater". Beginning in the 1890s, large numbers of Southern and Eastern European immigrant groups such as the Italians, Jews, and Poles arrived. Many returned to Europe but those who remained merged into the cultural melting pot, adopting American lifestyles.

어떤가? 다른 제시문들을 모두 읽어보면 절대 전체 제시문을 규정하는 주제어가 ‘생물학’ 따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제시문들은 모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문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통의 주제어는 무엇인가? ‘다문화 상황’이 바로 공통 주제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나온 제시문 [디]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다른 모든 제시문들의 논의가 모두 ‘다문화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감안해 이에 맞게 제시문을 읽어주어야만 한다.

항상 제시문 읽기는 개별적 제시문에 대한 읽기를 넘어서 ‘제시문 간 걸쳐 읽기’를 해주어야 한다. 제시문 [디]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일방적 승리, 및 승자 독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문화 상황’의 틀에 맞추어 읽어주어야만 한다. 즉,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디]는 **다문화 상황에서 타문화의 수용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배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읽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모든 문항과 모든 제시문을 걸쳐서 ‘공통의 주제어’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계에 출제되는 ‘수리논술’ 문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수리논술 문항이라도 앞 인문논술 문항과 같은 주제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험지에 적힌 모든 문자’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선 ‘공통 주제어’를 제대로 판별해내지 못하면 이를 기준으로 나뉘는 각 주장 및 입장 역시도 일관되게 정리할 수 없게 된다.

공통 주제어 설정 뒤에 생각해야 할 단 하나의 기준. 채점기준표

공통 주제어를 이렇게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채점기준표이다. 사실 경희대학교는 지금까지 ‘출제기준 및 개요’라고 하여 자신들이 문항을 출제한 출제기준과 개요를 설명해왔다. 그리고 분명 여기에는 실제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암시와 힌트가 모두 녹아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출제기준 및 개요’를 마주하면 처음 드는 생각은 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어찌라고, 뻔한 얘기만 하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경희대학교는 2014년에 한번 출제기준 및 채점기준이라고 하여 그 해 출제된 사회계1, 2와 인문예체능계 문항에 대한 출제기준과 함께 **채점기준까지를 제시한 바 있었다.** 앞서 살펴본 채점기준이 바로 그 중 하나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자료이다. 우리의 답안을 채점할 교수 및 채점 조교가 채점하는 모든 기준이 오롯이 그 채점기준에 들어있다.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육안으로 살피고 채점해야만 하는, 논술의 특성상 반드시 명확한 채점기준은 그 필요성이 자명하다. 채점을 ‘당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답안 작성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채점기준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하는가? ‘감사하게도’ 채점기준을 제시해 준 2014 오전, 오후 사회계 문항과 인문예체능계 문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읽어보고 내가 쓴 답안이 이 채점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보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채점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출제기준’만을 보고도 ‘채점기준’이 어땠을 지를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겠다. 하지만 독학을 한다거나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갖추었는지 애매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이런 말은 굉장히 요원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다.

따라서 본 책에선 뒤에 제시되는 실전편에서 실제 12회의 기출 및 모의 문항을 다루면서 각 문항들에 대해 자체 제작한 채점기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는 스스로 채점기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채점기준표의 FORM을 제공할 것이다.

다만 채점기준표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 분류’형 문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항에 대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각 단원에서 모두 그 단원에 맞는 채점 기준표를 공부해보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시문 분류’의 채점 기준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함께 공부해보고 이를 통해 답안 구성의 절대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역으로 도출해보자.

1) 논제 1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모든 현상은 형식(외면/외형)과 내용(내면/실체/실질)로 구분되며, 형식과 내용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식을 낳는다는 점을 논의하면 가점

-> '형식과 내용'이 공통 주제어임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제시문 분류를 통해 얻어지는 입장 및 주장의 '공통점'으로 기능한다. 답안에는 반드시 '공통 주제어'와 더불어 이에 대해 각 입장 및 주장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까지 언급되어야 한다.

② 제시문 [가], [나], [마]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제시문 [다], [라]는 내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구분하면 가점

-> 공통 주제어에 대한 입장 및 주장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분류는 앞서도 말했지만 '입장 및 주장' 차원에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은 절대 이 문항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 채점 기준표에도 명확히 각 입장 및 주장의 차원에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③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지 않고 독창적인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긴밀하게 논술했으면 (표현력) 가점

-> 당연하게도 논술 답안은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등의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는 어떤 학교의 문제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시문의 논리 구조를 충실히 녹여낸 것이 답안이 되어야 하지만,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 있지만, 제시문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입장을 분류한 후 작성한 답안이 버젓이 예시 답안으로 올라온 바도 있다. 제시문의 논의를 녹여내어 일반론적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채점시 유의사항

(1)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공부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로 예상됨. 형식과 내용이라는 용어 대신 외면/외형과 내면/실체/실질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답안에 대해서도 감점하지 않음

-> 공통 주제어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감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쓰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점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공통 주제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주요 논지

[가] - 디자인이라는 형식의 변화가 상품 매출을 두 배 이상 높였다.

[나] - 근대성을 상징하는 '의자'라는 형식(사물)의 도입이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꾸었다.

[다] - 외부에 비춰지는 나(social mirrors)보다는 실재의 나(true mirrors)에 집중할 때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라] - 미추(美醜)를 판단할 수 없는 장치를 도입한다는 상상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장점과 상관없는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마] - 와인 소비라는 형식을 타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와인을 통해 충족된 일치의 욕구는 사교생활의 촉매제가 된다.

[바] - 명실상부(名實相符).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형식도 문제이고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문제이다. 형식과 내용이 상호 충족되고 서로 부합할 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1) 논제 1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가]~[라]를 논지에 따라 [가]와[나] 및 [다]와 [라]로 분류하고, [가], [나]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 [라]의 경우 극복 대상의 부정적인 요소로 규정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공통점을 요약·제시하면 가점

-> 한마디로 ‘사회적 갈등’이라는 공통 주제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했는가 제1 첫 번째 채점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즉, 공통 주제어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흔들리면 처음부터 채점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답안이 되어 버린다.

-> 또한 분류 그 자체의 정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가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채점을 하라는 것 자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래 채점 시 유의사항에 보면 ‘분류’가 적절했으나 정확하지 않거나 이유가 적절히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감점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맞게 분류했어도 이러면 감점이라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틀린 경우는 채점 시 유의사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즉 안타깝지만 불합격이다.

② 제시문 [가]에 드러나는 갈등의 상호작용적 기능과 집단인식 강화와 같은 효과를 제대로 제시하면 가점

③ 제시문 [나]에 드러나는 갈등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그에서 비롯된 창조적 효과를 제대로 제시하면 가점

④ 제시문 [다]이 주장하는 갈등의 경제 손실적 측면과 예방의 필요성을 지적하면 가점

⑤ 제시문 [라]이 주장하는 계급간의 적대 관계와 미래의 갈등 없는 사회 도래를 지적하면 가점

-> 각 제시문에 대한 채점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컴팩트하게 답안에 언급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논술실록 시리즈 4권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사회적 갈등’이라는 공통 주제어에 대한 논리적 선행항과 후행항을 제대로 파악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부차적 주저리주저리’는 채점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면 감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딱딱한 자수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써야 할 말을 쓰지 않고 쓸데 없는 말을 쓰는 것은 결국 써야 할 말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즉 역시 안타깝지만 불합격이다.

⑥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있게 요약했으면 가점(표현력 등)

※ 채점시 유의사항

(1) 제시문 [가]와 [나]가 사회적 갈등을 긍정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에 반해 [다]와 [라]가 부정적으로 파악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대비적으로 서술할 경우 높게 평가함

(2) 분류 이유는 적절했으나, 분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분류는 제대로 했는데 분류의 이유가 적절히 제시하지 않으면 감점함

(3) 이 논지의 분류에 따라 그 차이점을 정확히 제시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본 문제의 의도이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지 않는 답안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 말아야 함

->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결국 ‘명확한 답안’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명확한 답안이라는 것은 ‘공통 주제어’에 대한 명료한 파악과 함께 각 제시문들이 이 ‘공통 주제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에서 갈리는 것이다. 즉, 공통 주제어의 도출은 경희대학교 논술 합격의 A to Z에 해당한다.

(4) 또한 창의적으로 문장을 구성하지 않고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 답안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 말아야 함

출처 : 경희대학교 2014 사회계 오전 / 오후 출제기준 및 채점 기준 [1번 문항]

제시문 분류 문항에 대한 두 채점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로 채점 기준을 정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 ① 공통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시문을 제대로 분류해야 한다. 여기서 공통 주제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도 좋으나, 반드시 표면적으로 언급해주어야 한다. 또한 분류 그 자체의 정오가 제일 중요하며, 이와 함께 적절한 분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분류 이유는 비교 기준, 즉 차이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뒤이은 근거 제시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 ② 각 제시문들의 논리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답안에 녹여내야 한다. 즉, 제시문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각 입장 및 주장의 근거로 차용해 서술해야 한다. 이 때 제시문을 반드시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도출된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녹여낸 경희대학교 제시문 분류 문항의 절대 구조를 도출해보기로 한다. 경희대학교 제시문 분류 문항의 절대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제시문 분류' 문항의 절대 구조 (2개의 입장 / 주장으로의 분류인 경우)

- [1] 공통 주제의 표면적으로 언급하며 여기의 어떤 '기준'에서 구체적 차이점을 드러내는지 정리하고 입장 / 주장을 우선 분류한다.
- [2] 입장/주장 1과 입장/주장 1에 포함된 제시문들을 연결 짓고 결론을 제시
- [3] 입장 / 주장 1의 근거 제시 (각 제시문의 논리 구조를 답안의 논리 구조에 반영)
- [4] 입장/주장 2와 입장/주장 2에 포함된 제시문들을 연결 짓고 결론을 제시
- [5] 입장 / 주장 2의 근거 제시 (각 제시문의 논리 구조를 답안의 논리 구조에 반영)

- 절대 구조를 반영한 답안 가안

제시문 [가~라/마]는 [공통의 주제어 A]에 대해 [기준]에 따라 [입장/주장 1]과 [입장/주장 2]로 분류된다.

먼저 [입장/주장 1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은 [공통의 주제어 A]에 대해 [입장/주장 1]한다는 입장이다.
[입장 / 주장 1에 포함되는 제시문 1]은 [이러이러함]을 보여주며 [입장 / 주장 2에 포함되는 제시문 2]는 [저러저러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근거에서 제시문을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제시문의 논리 구조를 반영하여 근거를 작성할 것)

반면 [입장/주장 2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은 [공통의 주제어 A]에 대해 [입장/주장 2]한다는 입장이다.
[입장 / 주장 2에 포함되는 제시문 3]은 [요러요러함]을 보여주며 [입장 / 주장 2에 포함되는 제시문 4]는 [조러조러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근거에서 제시문을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제시문의 논리 구조를 반영하여 근거를 작성할 것)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한 절대구조에 제시문의 내용을 끼워 넣기만 해도 그 자체로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제시하는 팁을 더해 다듬으면 최종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하는 팁은 '제시문 분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에도 모두 해당하는 팁이 될 수 있다.

절대 구조를 반영한 답안 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앞서 계속 접근해보았던 2015 모의 사회계 문항에 대한 예시 답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답안에서 앞서 제시한 절대 구조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예시답안]

[1] [가]~[마]는 다문화 상황에 대해 수용적 태도 여부 및 그 수용의 범위에 따라 분류된다.

[+] 먼저 [다]는 다문화 상황에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태도이다. 강자와 약자의 논리를 들어 타 문화에 대한 수용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자비교 문항)**

[2] [가], [마]는 단일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수용하는 동화주의적 입장이다.

[3] [가]의 프랑스 정부는 그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베일, 니캅 문화를 거부하며, [마]에서 미국인들은 용광로의 비유를 들어 혈통과 문화를 뛰어 넘는 새로운 생활양식, 정부, 그리고 개인의 지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4] 한편 [나], [라]는 각 문화의 본연적 속성을 존중하며 수용하는 다원적 다문화주의의 입장을 보인다.

[5] [나]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문화를 지켜가며 서로 포용하는 모습을 제시하며 [라]도 이슬람 문화의 비잔틴 종교 문화에 대한 존중 및 공존의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굳이 삼자 비교 문항을 가져온 이유는 결국 앞서 제시한 '제시문 분류 문항'에서 두 입장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절대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두 입장인 경우 +로 들어간 부분만 제외하고 '기준'만 조정하면 충분히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TIP! FROM 넵툰.

전제> 경희대학교 논술은 답안 분량이 적기에 무엇보다 답안을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쏟아야 한다. 답안은 완전히 컴팩트하게 '채점 기준'에 걸맞는 것이어야 한다.

결론> 그를 위해서는 명료한 용어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입장 및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명료한 용어가 있다면 반드시 제시해주자. 가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용어를 통해 입장, 주장, 관점을 일반화된 논의로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

꿀팁> 팁을 주자면 **교과논리를 상기해보자**는 것이다. 오늘날의 논술은 교과 지향적 논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과 논리를 상기해보면 명료한 용어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3> 양자 비교

: 경희대학교 인문예체능계열 1번 문항 해결의 Master Key.

단순히 제시문을 요약한 답안에 그치지 않으려면
양자 비교 문항의 절대 구조를 잘 기억하라.
쉬운 문제가 합격을 쉽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양자 비교 문항은 모든 정답을 써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단순 양자 비교. 가장 기본적인 논술 출제의 PATTERN

경희대학교는 인문예체능계 1번 문항에서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 비교하라는 식으로 단순 양자 비교 문항을 제시했다. 단순 양자 비교에 대한 파해법은 이미 논술실록 시리즈에서 많이 이야기한 바 있다. 가장 기본적인 비교 문항이며, 모든 비교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경희대학교에서 제시한 단순 양자 비교 문항의 채점 기준표와 함께 양자 비교 답안 작성의 절대 구조를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미 단순 양자 비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먼저 답안 작성의 절대 구조를 되새기고자 한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단순 양자 비교 문항’의 절대 구조

- [1] 비교 기준의 서술: 공통 주제어 A와 이를 포함하는 쟁점을 서술
- [2] 비교 기준에 대한 제시문 1의 결론
- [3] 비교 기준에 대한 제시문 1의 근거
- [4] 비교 기준에 대한 제시문 2의 결론
- [5] 비교 기준에 대한 제시문 2의 근거

- 절대 구조를 반영한 답안 가안

- [1] 제시문 1과 2는 모두 [공통 주제어 A]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A의 어떠한 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 [2] 먼저 제시문 1은 [A가 이리이러하다]라는 결론이다.
- [3] 이는 [이리이러하기] 때문이다.
- [4] 반면 제시문 2는 [A가 저러저러하다]라는 결론이다.
- [5] 이는 [저러저러하기] 때문이다.

공통 주제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앞선 ‘제시문 분류’ 유형에서 설명한 바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앞서 제시한 가안과 마찬가지로 절대 구조를 반영한 답안 가안에 제시문에서 추출한 내용을 단순히 대입하기만 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팁을 여기서도 다시 적용하여 다듬으면 최종적인 답안이 될 것이다. 구조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한 ‘제시문 분류’ 문항의 것보다 더욱 간단하며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시 답안 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했던 단순 양자 비교 문항에 대한 채점 기준을 가져와보기로 한다.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에 더하여 앞서 말한 절대 구조를 반영한 답안 가안을 활용하면 합격 가능한 답안을 쓸 수 있음을 확인하자.

1) <논제 1>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가점
- ② 제시문 [나]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가점

-> 우선 제시문 각각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양자 비교의 절대 구조 가운데 [2]~[5]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서술되는 내용이다.

- ③ 제시문 [가], [나] 내용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관계가 잘 드러나게 서술하면 가점

-> 또한 우리가 앞선 답안 가안 [1]에서 말한 ‘비교 기준의 서술’이라는 부분이 그대로 채점 기준에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 주제어 A의 파악과 더불어 여기에 결부된 쟁점/비교기준을 언급해주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있게 요약했으면 가점(표현력 등)

※ 채점시 유의사항

(1) 제시문 [가]는 일상의 관습과 편의, 중심적 지위에서 벗어나 ‘망명’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지식인의 표상’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저자는 지식인을 둘러싼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자신과 각투를 벌여나가는 가운데 참다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제시문 [나]는 소설의 주인공이 현실의 제문제를 정면에서 타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소설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일종의 현실도피적인 지식인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내용이 현실 문제에 대한 지식인의 서로 다른 태도(출제자의 의도 파악)를 보이고 있음을 명확히 파악해서 대비적으로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 한다.

-> ‘제시문의 PQ 논리 구조’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논술실록 시리즈 4권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주제가 되는 ‘지식인의 표상’이라는 공통 주제어에 대한 논리적 선행항과 후행항을 제대로 파악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역시 ‘부차적 주저리주저리’가 아니라 제시문 간의 공통의 주제어와 이를 포함하는 쟁점에 대한 중심적 논의에 해당하는 제시문의 논리가 그대로 답안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한다.

- (3)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과 태도 서술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보다는 이를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만의 글로 재구성하였는가를 중요시 한다.

당연하게도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앞서 제시한 양자 비교의 절대 구조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면 내용상 채점 기준 어디에도 감점이 발생하지 않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단순 양자 비교는 앞선 제시문 분류 유형에 비해 접근이 쉬운 편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답안들을 놓고 보면 생각보다 수준 미달인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는 모든 비교 문제에서 마찬가지지만, 특히 양자 비교에서는 더욱 이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양자 비교 문제를 식상하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문제가 쉬울수록 경계하고 다른 답안과 비교해 모든 답안 포인트를 가져가야겠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양자 비교의 절대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단순한 제시문 요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양자 비교의 절대 구조를 의식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두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도 그 관계를 드러내지 못해 합격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부탁한다.

절대 양자 비교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자. 시험 문항의 난이도는 합격의 난이도를 결정하지 않는다.

<4> 대응

: 경희대학교 사회, 인문예체능계열 2~3번 문항 해결의 Master Key

단순 대응: 한 입장에서 문제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상을 **설명**하는 경우
(단순한 두 대응 지점간의 연결)

비판/평가 대응: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들)을 **비판/평가**하는 경우
(‘일반론’간의 충돌)

대응적 비교: 한 입장에서 **‘재단된’ 사례들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
(‘일반론’의 시각에서/바탕으로 본 ‘사례’들을 비교)

대응을 활용한 문항, 제시문 분류와 단순 양자 비교를 제외한 경희대학교의 모든 문항

경희대학교의 나머지 문항들, 그러니까 사회계의 2번 문항과 인문예체능계의 2, 3번 문항은 모두 대응에 기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응의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기존 시리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응을 활용한 문항이라고만 설명하면 그것만으로는 문항을 해결하기 어려워하곤 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응을 재료로 하는 해당 문항들에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한다고 해야 더 정확하겠단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희대학교에서 출제한 최근 12회간의 기출문항과 모의 문항의 발문을 모두 분석해 ‘대응’ 기반형 문항을 조금 더 유형을 세분해 제시하고자 한다. 각각 단순 대응 유형과 비판/평가 유형, 그리고 대응적 비교 유형이다.

실제 출제 양상을 놓고 보면 비판/평가 유형이 가장 많고 (8.5회) 그 다음이 단순 대응 유형이며 (5.5회), 마지막으로 대응적 비교 유형 (2회)이 뒤따르는 순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단순 대응 유형을 가장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으로 비판/평가 유형을, 마지막으로 대응적 비교 유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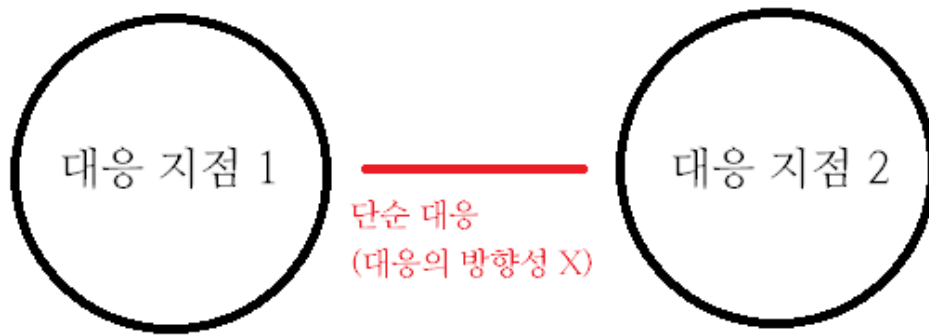
단순 대응 유형 (설명 / 방안 제시)

먼저 단순 대응 유형이다. 단순 대응 유형은 대응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거나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발문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우선 발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왜 이러한 경우를 단순 대응 유형으로 분류했는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단순 대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대응이 이루어지는 두 대응 쌍의 관계에서 한 대응 지점이 다른 대응 지점에 대해서 어떤 ‘주체적’인 입장에서 서 있지 않을 경우, 즉 단순히 ‘연결’만이 이루어지거나 ‘일반론적인 논의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를 이 유형으로 분류했다.

설명 유형이 두 대응 지점이 단순히 ‘연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방안 제시 유형이 두 대응 지점이 어떤 ‘일반론과 구체화’의 차원에서 대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이 두 경우는 모두 대립관계를 가지는 첨예한 입장 및 주장 간의 대응이 아니라 단순한 대응 지점간의 대응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응 쌍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관계를 가진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을 놓고 실제 발문들을 들어 설명해보기로 한다.



그림을 제시했으니 이제 이에 해당하는 출제된 발문들을 가져다 놓고서 함께 생각해보기로 하자. 먼저 ‘방안 제시’에 해당하는 발문이다.

> 한국사회에서 지역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지역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나타난다. **제시문 [마], [바]의 논지를 근거로 혐오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의 해결 방안 및 한계점을 논하시오.**

2013 오후 사회계 2번 문항의 발문이다. 다른 발문들에 비해 다소 긴 편이라서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발문은 길수록 많은 힌트를 준 것이고 확실한 답의 길을 준 것이기 때문에 더욱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발문의 경우 먼저 한국사회에서 혐오 시설 설치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두 제시문의 논지를 가지고 해결 방안과 한계점을 논하라고 했다. 즉, 방안 제시와 이에 더해 방안의 한계점까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두 제시문의 논지는 모두 ‘일반론’적 차원에서 제시된다. 그리고 발문에 제시된 ‘한국사회의 혐오 시설 설치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 문제’는 ‘구체적 사례’이다. 따라서 이 문항은 ‘일반론’의 논지를 ‘구체적 사례’에 대해 해결하는 식으로 자신의 답안이 구성되어야 한다.

당연히 방안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성’을 보여야 하고, 그에 대한 한계점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방안과 한계는 모두 ‘일반론’적 논지에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그림의 대응 지점 1이 ‘일반론’이라면 대응 지점 2는 ‘구체적 사례’가 되는 것이고, 이 둘은 어떤 ‘의견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다른 쪽에 ‘설명’이 되는 식으로 대응이 되는 것임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문항의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와서 실제 채점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연결 지어 설명해보기로 한다.

2) 논제 2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마]의 논지가 경제적 관점에서 이익배분 차원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바]의 논지가 사회적 구성원의 토론과 합의라는 정치적 시각의 접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적하면 가점
- ② 위에 적시된 제시문 [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보상 방법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가점
- ③ 위에 적시된 제시문 [바]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 당사자들의 자유롭고도 자발적인 참여, 토론, 대응 방안 결정 등의 과정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설명하면 가점

-> 여기까지, 대응지점 1에 대한 이해를 묻는다. 당연히 대응을 하려면 각 대응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논술실록 시리즈 4권에서 다루는 PQ구조가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관점이 전제되었을 때, 그 관점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논리적 후행항으로 제시문에서 제시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여 답안에 녹여내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까지 '단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더불어 앞선 p. 20에서 제시한 꿀팁이 여기서도 먹히는 것을 상기하자. 경제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점이라는 '관점에 이름 붙이기'는 교과논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마]와 [바]를 제대로 이해한 것임을 드러내주며, 실제 채점 기준표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자. 반드시 기억하자.

- ④ 제시문 [마]의 내용에 기반한 해결 방안이 지니는 한계점과 관련 지나친 이기주의와 공공성의 훼손 등 경제 제일주의에서 파생되는 위험성과 시민 교육(심의 과정의 상호 학습기회)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 가점
- ⑤ 제시문 [바]의 내용에 기반한 해결 방안이 지니는 한계점과 관련 전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어려움, 비생산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의 과정, 의사 결정의 지연 및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면 가점

-> 발문에서 한계점 제시를 요구했다. 채점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한계점이라고 해서 본질적인 대응의 양상이 해결 방안 제시와 다른 게 아니다. 다만 한계점의 경우에는 교과 논리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다. 본질적으로는 역시 '단순 대응'이다.

- ⑥ 유사한 문장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문장 간의 구성이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가점(표현력, 창의력 등)

※ 채점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마]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들 간의 관계를 작동시키는 핵심 원리가 이익의 추구라고 판단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생활 구역 내에 혐오 시설 건립이라는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기주의에 대한 도덕주의적 비판이나 감상적 애타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적 관점에서 스미스의 관점을 적용시켜 그 장단점을 지적한 서술을 높이 평가 한다.
- (2) 대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탄생한 참여적 심의 민주주의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동시에 해당 제도가 지닐 수 있는 여러 한계들을 냉철히 지적한 서술을 높이 평가 한다.
- (3) 제시문 [마]와 [바]의 관점이 지니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이 본 문제의 의도이므로 장점이나 단점 한 측면에만 지나친 강조를 부가하는 답안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 말아야 함

-> 발문의 요구가 해결 방안과 한계점을 모두 논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 방안이나 한계점이나 본질적으로 '단순 대응'에서 이끌어지는 것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항의 답안이 어떤 구조로 작성되어야 할지를 확인해보자.

- 대응 기반 '방안 제시형'의 절대 구조

- [1] 대응 지점 1의 서술 (일반론적 입장/주장)
- [2] 대응 지점 2의 서술 (구체적 사례)
- [3] 대응 지점간의 연결 (일반론적 입장/주장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응)

- 절대 구조를 반영한 답안 가안

- [1] 제시문 [X]는 [x1, x2, x3를 포괄하는 일반론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 [2] 이는 [x1], [x2], [x3]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3] 제시문 [Y]는 [y1, y2, y3의 대응 지점]을 포함하는 상황이다.
- [4] 제시문 [Y]의 [y1]은 [X]의 [x1]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5] 제시문 [Y]의 [y2]는 [X]의 [x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6] 제시문 [Y]의 [y3]는 [X]의 [x3]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대 구조의 틀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답안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여기서는 일부러 이러한 발문 구조 가운데 다소 난해하게 보일 수 있는 문항을 가져와 답안의 구조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 한국사회에서 지역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지역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나타난다. **제시문 [마], [바]의 논지를 근거로 혐오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의 해결 방안 및 한계점을 논하시오.**

이 문항의 경우에는 발문이 다소 '변형'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응 지점 2가 제시문이 아니라 '발문'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문항에서는 발문에 혐오 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즉 대응 지점 2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니다. 파악한 대응 지점 2에 대해 제시문 [마], [바]의 대응 지점 1을 근거로 해서 해결 방안 및 한계점을 논하면 된다.

또한 '한계점'을 논하라고 한 면에서 또한 약간의 발문 변형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한계점'은 해결 방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이러한 해결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결국 해결 방안 내의 자체적인 모순과 같은 지점을 지적해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대응 지점 1'에 해당하는 제시문의 논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예시답안]

혐오 시설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제시문 [마]는 이익 배분을 통한 갈등 조정을, 제시문 [바]는 주민 참여 확대와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시문 [마]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혐오 시설의 설치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혐오 시설이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거나 세금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 보상 대책이 갈등 해결에 효과적이다.

한편, 제시문 [바]는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별로 포럼을 구성하고, 숙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다.

그러나 제시문 [마]에 기반한 갈등 해결 대책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특정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공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과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

한편, 제시문 [바]의 심의 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공론장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역 갈등의 지리적 범위가 커지면 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가 등 제 3자의 조정이 없다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출처 : 경희대학교 입학처, 2013 오후 사회계 예시 답안

이와 같은 패턴으로 묶이는 다른 문항의 발문들 역시 가져와보았다. 모두 같은 생각의 Process가 작동함을 확인하자.

> 제시문 [가]에서 제기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나]~[마]를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2014 모의 인문·예체능계 2번): 대응 (단순 대응)

> 제시문 [다], [라], [마]의 시각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각각 비판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동선을 어떻게 추구하여야 할지를 논술하시오.**
(2013 오전 사회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단순 대응)

> 제시문 [라], [마], [바]가 환경 보전 활동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오.**
(2013 오후 사회계 2번): 대응 (단순 대응)

> 제시문 [가]의 주장이 제시문 [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논술하시오.**
(2013 모의 사회계 2번): 대응 (단순 대응)

다음으로 설명에 해당하는 발문을 가져와 보았다.

> 제시문 [다]의 내용에 근거해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시오.**
(2013 인문·예체능계 2번): 대응 (단순 대응)

앞서 설명한 방안 제시의 유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설명 유형은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제시한 그림과도 어렵지 않게 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비판/평가 유형

다음으로 비판/평가 유형이다. 경희대학교에서 대응을 기반으로 출제한 문항 가운데 가장 많은 문항이 여기에 해당하며 사회계의 경우 1번 문항에도 2번 출제된 바 있다. 반드시 대비해두어야만 하는 유형이다.

다만 발문의 구성은 그다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고 상당히 단순하다. 대응 발문을 기반으로 하여 마지막에 “~을 비판/평가하시오.”라는 말이 제시되면 곧 비판/평가 유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 > 제시문 [가]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2013 오전 사회계):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나]와 [다]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2013 모의 사회계):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다]~[마]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2015 모의 사회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마]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2015 오전 사회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주인공, [다]의 화자, [라]의 ‘현재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2014 인문·예체능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 [라], [마]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2014 모의 사회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다], [라], [마]의 시각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각각 비판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동선을 어떻게 추구하여야 할지를 논술하시오.
(2013 오전 사회계 2번): 대응 (비판/평가 + 단순 대응)
- > 제시문 [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와 [다]의 주요 논지를 비판하시오.
(2013 인문·예체능계 3번): 대응 (비판/평가)
- > 제시문 [마]의 관점에 입각해서 제시문 [가]와 [나]의 한계를 비판하시오.
(2013 인문·예체능계 3번): 대응 (비판/평가)

이 유형에 대한 접근법은 앞서 말한 ‘방안 제시 / 설명’을 요구하는 단순 대응 유형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편할 듯 하다. 앞서 설명한 단순 대응 유형은 두 대응지점간의 관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둘간의 관계는 ‘일방적 설명’의 관계이거나 ‘적용’에 불과한 것이다. 추상적인 논의가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비판/평가’는 기본적으로 두 ‘입장/주장’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부딪히는 두 주장이 먼저 존재해야만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비판/평가는 당연히 두 입장에서 ‘불일치 대응’하는 지점에 주목했을 때 그 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서 이런 발문이 응용되는 경우를 들어보기로 한다.

<문제 2> 개별형 사이트에서 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곡을 다운로드한 횟수가 미공개 신곡들의 질을 반영한다는 가정 아래 제시문 (라)의 실험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연세대학교 2012 사회 (새로움)

<문제 2> 제시문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1)을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 연세대학교 2013 사회 (낙관성)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도 발문 구조상 어떤 한 쪽의 대응지점에서 다른 대응지점을 일방적으로 평가/비판하는 식의 발문이 종종 등장한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연세대학교의 해당 문항은 제시문 내에 ‘양면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경희대학교의 문항보다 한 차원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발문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양 측의 입장 가운데 한 쪽의 대응 지점을 확인해 반대쪽의 대응 지점에 대응해 불일치 하는 지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은 여러 학교에서 종종 등장하는 유형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항의 채점 기준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4 인문예체능계 문항 2번의 발문과 함께 이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가져와보겠다. 먼저 발문은 다음과 같았다.

> 제시문 [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주인공, [다]의 화자, [라]의 ‘현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2014 인문·예체능계 2번): 대응 (비판/평가)

앞서 말한 대로, 제시문 (마)가 대응 지점 1이며, 제시문 [나]의 주인공, [다]의 화자, [라]의 현자가 대응 지점 2임을 알 수 있다. 대응 지점 2는 대응 지점 1과의 대응에서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며 이 지점을 밝혀 답안을 작성해주면 된다. 이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2) <논제 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술하면 가점

-> 대응 지점 1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평가한다. 당연히 대응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대응 지점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이 문항의 경우에는 [마] 제시문이 '시'였다. 구체적 사례라고만 생각하면 그 자체로는 어떤 입장 / 주장을 가지는 것임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대응 지점 2와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일반론적 입장 /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문항은 '시'에서 어떤 일반론적 입장 / 주장을 끌어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제시문 [나]의 태도를 제대로 비판했으면 가점

③ 제시문 [다]의 태도를 제대로 비판했으면 가점

④ 제시문 [라]의 태도를 제대로 비판했으면 가점

-> 대응 지점 2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불일치 대응'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나], [다], [라]가 구체적 사례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비판/평가는 '일반론적 입장 및 주장'간의 충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라]의 등장 인물들의 태도를 어떤 '일반론적 차원의 입장 / 주장'으로 일반화 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⑤ 유사한 문장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문장 간의 구성이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표현력, 창의력) 가점

※ 채점시 유의사항

(1) 제시문 [마]는 황지우의 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의 시이다. 이 시에서 저자는 험한 현실에서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체적인 현실 극복의 의지를 나무를 통해 은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서술한 것을 높게 평가 한다.

(2) 제시문 [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시문 [나]의 현실도피적 태도를 비판하고, 제시문 [다]의 사회적 권위에 편승하는 지식인 상을 비판하며, 제시문 [라]의 현실 속에서 주체성을 결여한 채 대중과 영합하는 지식인 상을 비판한다.

-> 채점 기준에도 나와있듯, [나], [다], [라]는 구체적 예화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에게 각각 '현실 도피적 태도'라던지 '사회 권위에 편승하는 지식인 상'이라던지, '주체성을 결여한 대중 영합형 지식인 상'이라는 일반론적 입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즉, 비판/평가 발문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기 위해서는 '구체적 예화/사례'로 제시문이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를 '일반론적 입장 / 주장'으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두 대응 지점간에 대응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역으로 대응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꿀팁으로 언급한 '교과 지식의 활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3) 여기에서는 시를 비롯한 문장의 분석능력 및 추론능력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 정연하게 문장을 서술해 나가는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출처: 경희대학교 입학처, 2014 인문예체능계 출제 기준 및 채점 기준

결국, 채점 기준표에도 우리가 도식화한 대로 비판/평가 발문은 일반론적 입장/주장 간의 충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답안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할지 그 구조를 제시하기로 한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대응 기반 '비판/평가 유형'의 절대 구조

- [1] 비판/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시문의 입장/주장 서술
- [2] 비판/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시문의 입장/주장의 근거 제시
- [3] 비판/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시문에서 본 객체 제시문의 타당성
- [4] 객체 제시문의 대응 지점 2와 주체 제시문의 대응 지점 1과의 대응 관계 점검

- 절대 구조를 반영한 답안 가안

- [1] 제시문 [X]는 [x1, x2, x3를 포괄하는 일반론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 [2] 이는 [x1], [x2], [x3]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3] 제시문 [Y]는 제시문 [X]의 관점에서/입장에서 [타당하다/타당하지 않다.]
- [4] 제시문 [Y]의 [y1]은 [X]의 [x1]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5] 제시문 [Y]의 [y2]는 [X]의 [x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6] 제시문 [Y]의 [y3]는 [X]의 [x3]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단순 대응 유형과 설명해 구조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응을 그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판/평가를 하는 경우 '일반론적 주장'간의 충돌이 전제되어야 함을 항상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답안에 드러내어 비판을 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여기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반영해 작성한 예시 답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실제로 경희대학교에서 직접 발표한 예시 답안을 통해 확인해보자.

제시문 [마]는 겨울을 견뎌 내며 꽃을 피우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암울한 시대적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드러낸 작품이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지상에 굳건히 뿌리박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대지를 밀어 올려 기필코 자기 몸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부정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 주인공은 책 속으로 망명한다. 그는 소설책을 읽으며 매혹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든다. 소설의 세계는 이야기와 현실이 전도된 가상의 세계이자, 외부 현실과 단절된 고립적이고 자족적인 공간이다. 주인공은 현실의 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기보다는 비현실적인 소설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일종의 현실도피적인 지식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는 외부 세계의 시련을 주체적 의지로 극복하려는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제시문 [다]의 화자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뚜렷한 명분 없이 타자의 의견을 추종하는 지식인들의 천박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지식인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지식인 사회의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이른바 침묵을 전략으로 시류에 영합하는 현실추수적인 지식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어진 현실의 고통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가는 제시문 [마]의 나무를 통해 이러한 지식인의 허위성을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라]의 '현자'들은 대중들의 취향과 욕구, 즉 시대적 흐름에 영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이라 여기고, 대중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추함,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등의 본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제시문 [마]의 나무는 부정한 시대적 현실에 영합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주체적 의지로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결여한 채 대중과 영합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현자'들은 비판받을 수 있다.

출처: 경희대학교 입학처, 2014 인문예체능계 예시 답안 (2번 문항)

구성상 순서의 차이나 세세한 서술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여기서 제시한 절대 구조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응적 비교 문항

마지막으로 대응적 비교 유형이다. 경희대학교에서는 그다지 자주 출제되지 않는 유형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지금껏 고려대학교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어온 발문이다. 우선 발문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경희대학교 발문에 더하여 같은 유형의 고려대학교의 발문 구성도 함께 확인해보기로 한다.

[KHU]

> 제시문 [바]를 기반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논술하시오.

(2015 모의 인문·체능계 2번): 대응 (대응적 비교)

> 제시문 [다]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라]의 양자(A, B)의 관점의 차이를 논술하시오.

(2013 인문·예체능계 2번): 대응 (대응적 비교)

[KU]

> (2)의 관점에서 (1)의 (가), (나)를 논평하고, ~

(2013 오전 1번): 대응 (대응적 비교)

> 평판에 관한 (1)의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 분석하고, ~

(2013 오후 1번): 대응 (대응적 비교)

> 1의 세 의견을 활용하여 2와 3을 설명하고, ~

(2014 오전 1번): 대응 (대응적 비교)

> 1의 논지를 바탕으로 2에 소개된 자발적 결사체들의 특성을 비교 설명하고, ~

(2014 오후 1번): 대응 (대응적 비교)

고려대학교에서 거의 매번 출제되어온 문항이기도 하여 이미 논술실록 시리즈 등을 통해서 많이 다룬 바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사실 여기에서 그에 더하여 특별히 설명할 만한 것은 따로 없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 내용만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대응적 비교 문항의 핵심은 ‘기준이 되는 제시문(대응 지점 1)’과 ‘대상이 되는 제시문(대응 지점 2)’의 관계를 통해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비교 문항은 ‘1 vs 2’로서의 비교라면, 대응적 비교 문항은 ‘A의 관점에서 본 1 vs A의 관점에서 본 2’의 비교라는 것이다.

대응적 비교를 위해서는 우선 기준이 되는 제시문인 제시문 X(대응 지점 1)에서 대응 요소들을 뽑아내야 한다. 대응적 비교에서는 이들이 비교 기준이 되며, 이를 가지고 대상이 되는 제시문(대응 지점 2)에서의 일치/불일치 관계를 밝혀주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대응적 비교의 답안 서술의 절대 구조를 정리해보자. 대응적 비교의 답안 서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대응 기반 '비판/평가 유형'의 절대 구조

- [1] 기준 제시문 (X)의 정리 (x1, x2, x3)
- [2] 대상이 되는 제시문 (Y, Z)의 비교 기준 및 주장 제시
- [3] 제시문 [Y]의 비교 기준에 대한 대응 관계 점검
- [4] 제시문 [Z]의 비교 기준에 대한 대응 관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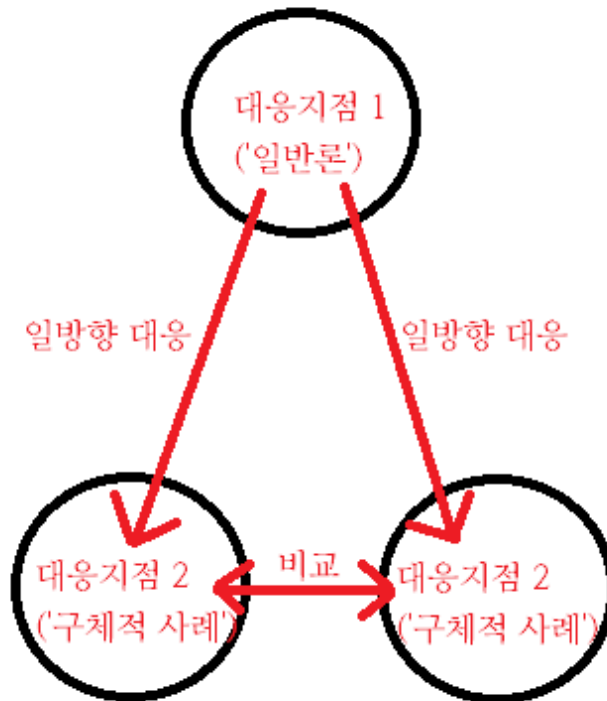
- [1] 제시문 X는 x1, x2, x3에 대한 글이다(간단히 요약)
- [2]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Y와 Z를 비교할 수 있다.
Y는 x1~3에 일치하여 X에 부합하며, Z는 x1~3과 달라 X의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 (반대 가능)
- [3] X의 x1~3과 Y의 y1~3은 (같다/다르다) 이기 때문이다.
- [4] X의 x1~3과 Z의 z1~3은 (같다/다르다) 이기 때문이다.

- 절대 구조를 반영한 답안 가안

- [1] 제시문 [X]는 [x1, x2, x3를 포괄하는 일반론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 [2] 제시문 [Y]와 [Z]는 [x1, x2, x3를 포괄하는 비교기준]에 따라 상반된다.
- [3] 제시문 [Y]는 제시문 [X]의 관점에서/입장에서 [타당한/타당하지 않은] 입장이다.
- [4] 제시문 [Y]의 [y1]은 [X]의 [x1]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5] 제시문 [Y]의 [y2]는 [X]의 [x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6] 제시문 [Y]의 [y3]는 [X]의 [x3]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7] 반면 제시문 [Z]는 제시문 [X]의 관점에서/입장에서 [타당한/타당하지 않은] 입장이다.
- [8] 제시문 [Z]의 [z1]은 [X]의 [x1]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9] 제시문 [Z]의 [z2]는 [X]의 [x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10] 제시문 [Z]의 [z3]는 [X]의 [x3]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에서는 거의 매년 출제되어온 패턴의 문항이기도 하다. 논술실록 시리즈를 통해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이러한 패턴의 문제는 이미 많은 훈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는 대응적 비교에 출제되는 제시문 구성의 전반과 실제 문항의 예시 답안을 함께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대응적 비교 문항의 제시문 구성을 이해해보자. 대응적 비교의 기준 제시문은 '일반론'적 서술을 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제시문들은 이 '일반론'적 서술에 비추어보아 일치 대응하거나 불일치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 서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이다.



대응적 비교 문항은 이처럼 기준이 되는 일반론적 제시문에서 제시되는 대응 지점들과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는 사례 제시문에 나타나는 대응 지점들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보통 대응 지점 2에 해당하는 사례 제시문은 2개 제시되지만, 경희대학교의 이번 모의는 세 개의 제시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본질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세 개의 제시문을 두어 대응적 비교를 요구했던 이번 문항의 발문과 예시 답안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해보기로 하자. 2015 모의 문항이다.

> 제시문 [바]를 기반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논술하시오.
 (2015 모의 인문·체능계 2번): 대응 (대응적 비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시문 [바]를 ‘일반론’의 제시문, 기준 제시문으로 삼고 이를 [다], [라], [마]의 ‘구체화’된 사례 제시문에 대응해가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공통 주제는 ‘공감’이라고 문항에 주어졌으니 이를 놓치지 말고 제시문 독해에 활용하자.

여기서는 제시문 독해의 과정은 생략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답안은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다.

[문제 2의 예시 답안]

공감은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인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x1)이다. 공감은 감각, 감정, 이성, 마음, 영혼 등 인간이 지닌 모든 영역에 관계하며,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 입장전환, 상호성, 상상력 등의 다양한 능력을 필요(x3)로 한다. 공감의 작동은 인간의 본성과 개인의 기질, 상황의 논리 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타자와 세계를 위한/향한 실천이 동반될 때 온전한 의미(x2)를 가질 수 있다.

[제시문 정리 : 대응지점을 중심으로]

----> x1: 공감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사회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다.

----> x2: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공감을 할 수 있다.

----> x3: 단순한 감각과 지식을 초월한 다양한 '인간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감정이입, 입장전환, 상호성, 상상력 등

[다]는 위급한 재난의 상황에서 서로 모르는 타인들 사이에 일어난 타아일체(x2+x3 대응)의 공감을 다룬다.(x1 대응) [결론문장] 순식간에 생사가 엇갈리는 재난은 인간의 살고자 하는 본능을 극대화하며,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이기심 역시 극대화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진과 화재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발휘한 것은 자기중심적 자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적 자아(x2 대응)였다. 타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 및 입장전환의 사고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x3 대응)한 경지였다.

[라]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일어난, 상호성에 의한(x3 대응) 공감을 묘사한다.(x1 대응) [결론문장] 이 놀라운 상호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상대를 죽여야 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한 공동의 입장에 대한 통찰(x2 대응)이다.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 죽여야 하는 적대적인 상호성을,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 우호적인 상호성으로 바꿈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균형점에 도달한다.(x3 대응) 죽음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호 교환하는 공감의 방식(x2 대응)은 제한된 형태로나마 전쟁의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인간이 서로 존중해야 할 최후의 대상인 생명에 대한 존엄성(x3 대응)을 일깨운다.

[마]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대상이 아닌,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낯선 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x3 대응) 공감을 그린다.(x1 대응) [결론문장] 시 속의 '나'는 어느 관공서를 지나다 그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서기'를 목격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나'의 공감에는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감정이입, 입장전환의 사고, 타자가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는 상상력 등이 결합되어 있다.(x3 대응) 삶의 출구가 막힌 '서기'에 대한 공감은 "희고 거대한 서류몽치로 변해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에서 보듯 사물에 대한 공감으로까지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이른다. 이는 타자를 주체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전유와 구별된다.(x2 대응) (1,200자)

출처: 경희대학교 입학처, '201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실제 경희대학교에서 제시한 예시답안을 분석해본 것이다.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결국 중심이 되는 제시문의 일반론적 논지를 다른 '구체화된 사례 형태의' 제시문들에 대응해가는 방식으로 '비교'를 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대응적 비교 문항이 그다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모의 문항의 인문계열에서 이미 출제되었으므로 염두에 두고 준비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연습 문항들은 고려대학교에 특히 많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 실전편

역대 기출문제

오르비 논술팀 정답가안
정답 및 해설